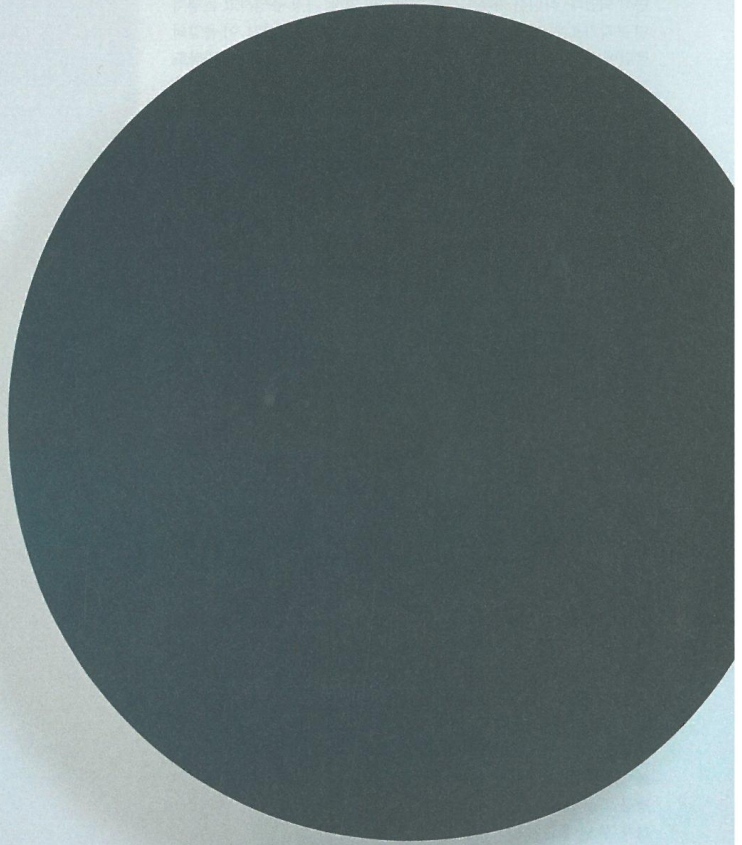


'Gathering Clouds' 앞에 선 안나뉘 카푸어

사진 / Kim Dowon



# 아니쉬 카푸어의 '반대'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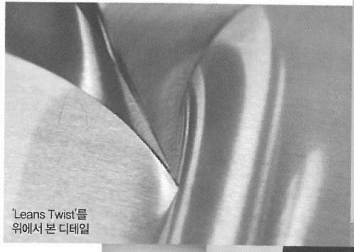
국제갤러리에서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개인전 <Gathering Clouds>가 개막한 지난 8월 31일, 현대미술의 거장과 마주앉아 단 35분, 녹차 한잔을 마실 수 있었다. 급박한 인터뷰와 인터뷰 사이, 뜻밖의 차분하고 사색적인 대화의 시간이었다.

**명**리학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음양에 대해 배운다. 비과학적이라고 비판 받는 이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는 계절의 변화, 성격, 인간관계, 하물며 음식의 매칭까지 모든 게 음양으로 설명이 되었다. 아니쉬 카푸어를 현대미술의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조각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작품들 또한 공허와 무한함, 이 음양의 극단에 있는 상태를 동시에 표현한다고 같음하고 싶은 정도다. 뭐라도 가득 차 있는 듯 조각 내부의 빈 공간을 유심히 응시하게 한 'Void' 연작이 그렇고, 물이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Descension'을 베르사유의 인공 호수에 설치해 그곳의 풍요로움을 무의미하게 만든 작품이 그렇다. 곧잘 관객에게 암흑의 심연을 선사했던 카푸어는 "텅 빈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난해 무대미술을 맡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두 주인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트리스탄은 남자다운 남자이고 이졸데는 위험한 여성이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힘이 셀까? 결국 이졸데가 이긴 것이다." 또, 이번 기간간담회에서 예술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조각은 '굉장히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우리 몸은 물리적인 유기체만은 아닐뿐더러 영혼도 있고 정신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오브제가 우리 몸처럼 정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 오브제의 영적인 부분을 실현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양이 더 주도적인 것 같지만 중국에는 음이 승리하는 아이러니. 결국 우리 삶은 대척점에 있는 생의 기운들이 유기적이고 유동적이며 순환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삶의 진리를 아니쉬 카푸어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스테인리스스틸이나 섬세한 분말 안료로 뒤덮인 조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물질일 것이라 기대하며 전시장을 찾은 날, 어두운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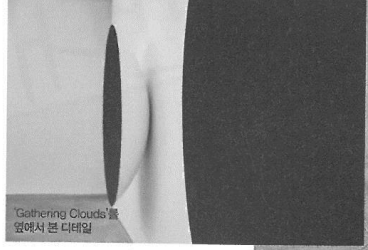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극도로 매끄러운 표면의 스테인리스 텅 어리에서 반사된 빛이 유리창처럼 떨어진다. 눈이 시러서 작품의 표면에 납작하게 짜부라져 비치는 내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국제갤러리에서 세 번째

갖는 이번 전시에서 아니쉬 카푸어가 선보이는 두 연작 중 '비정형(Non-Object)'은 그가 수 년에 걸쳐 탐구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단단한 스테인리스강철 덩어리를 불특정된 각도로 휘어지게 한 신작 '트위스트'는 공격적이라 느껴질 만큼 강렬했다. 2.5m에 달하는 작품 석 절이 사이를 두고 서 있는 전시장에 들어갈 때는 신성한 강철 숲에 온 것 같았고, 60cm 높이의 작품 12점이 선반 위에 놓여 도열된 시리즈는 새벽빛에 노출된 드러클라처럼 눈가리개를 하며

힘겨리게 만들었다.



'Leans Twist'를 위에서 본 디테일



'Gathering Clouds'를 위에서 본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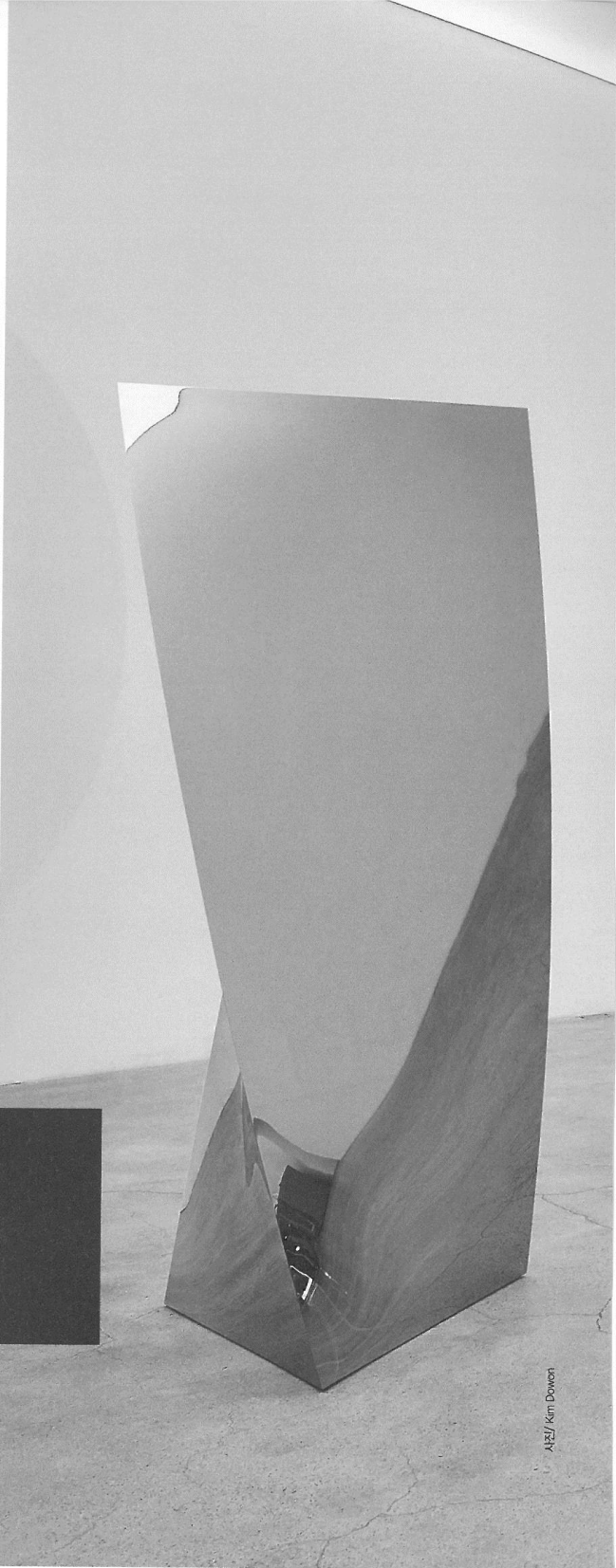


사진 / Kim Dowon



'Non-Object(Oval Twist, Door, Square Twist)',  
Stainless Steel, 250×129×150cm,  
281,3×118,1×119,1cm, 250×144×100cm, 2008



"Sky Mirror", 2006 Stainless Steel, Diameter 10m,  
Kensington Gardens, 2010-11 Photo: Tim Mitchell

"Tristan and Isolde(set design)", English National Opera,  
London Coliseum, Photo: Dave Morgan



“저는 예술가로서의 저와 한 인간으로서의  
저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예술가로 살았어요.  
예술가가 아닌 저를 상상할 수도 없죠.”

기자간담회에서 카푸어는 몇 년간 특별히 ‘비정형’ 시리즈를 탐구해왔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작업은 단순히 형태를 바꾸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하학적으로 물성에 트위스트를 주면(각도를 꺾게 되면) 어떤 식의 오목한 표면이 만들어질까? 또는 어떤 변화를 형태에 이끌어내게 될까를 연구하는 시기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는 오목한 표면과 트위스트가 이루어져서 관객들이 좀 더 다각적인 차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제가 작품 구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많은 얘기를 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스처만 있다면 그 제스처 스스로 다층적인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형태를 떨 때 더욱 깊은 의미가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카푸어는 ‘비정형’ 시리즈를 ‘불확실한 오브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작품의 경우 공간에 상관없이 오브제 자체만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낸다고 말했다. 첫 질문은 그 ‘공간’에 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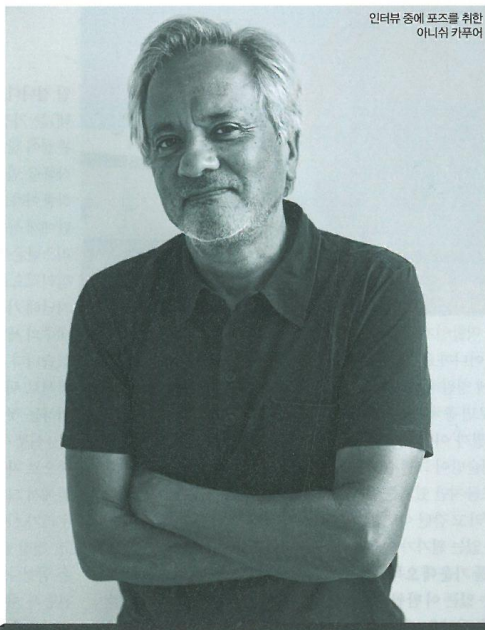
언젠가 당신은 미술관에 들어선 관객들에게 ‘Comfort Zone’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선보인 ‘비정형’ 시리즈의 신작들은 정말이지 그렇더군요. 극도로 매끄럽고 눈이 부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오래 쳐다보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 전시를 보는 관객들의 동선을 예측하거나 지켜본 적이 있나요? 전시를 기획할 때 관객을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 작품은 관객의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되어야겠지만 전시회 자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공간이 여의치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관객이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 공간의 경우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선보이는 ‘비정형’ 시리즈와 ‘군집된 구름들(Gathering Clouds)’은 대체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죠. 무채색과 컬러가 있는 작품은 완벽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번 컨셉트에는 매우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작품을 접했을 때 경외감이라는 건 가장 높은 확률로 드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시대와 비교해 경외감을 경험할 기회가 훨씬 적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예술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설명하기 힘든 대상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스터리한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명제요, 간단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입니다. 당신보다, 우리보다 큰 존재,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이지요. 우주를 대면할 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 경외감이 느껴지죠. 우주는 대체 얼마나 거대한 거야,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는 느낌. 예술작품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조각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는 조각작품을 이해하기 힘든 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이지요. “이건 얼마나 큰 걸까? 세상에...” 라고 감탄하게 하는,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는 불명확함은 경외감이나 놀라움으로 연결됩니다. 경외감(Awe)과 놀라움(Wonder)은 일맥상통합니다. 신비롭고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내 안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죠.

이런 것들이 예술이 우리를 대표시키는 시적인 특징이죠. **최근에 경외감을 들게 한 무언가가 있었나요?** 사막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최근에 나미비아 북쪽 사막에 갔는데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죠. 나무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고 바위와 모래만 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들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성을 가진 작업 재료는 무엇인가요?** 소재는 하나를 꼽기가 어렵고 컬러는 있습니다. 빨강색을 언제나 가장 좋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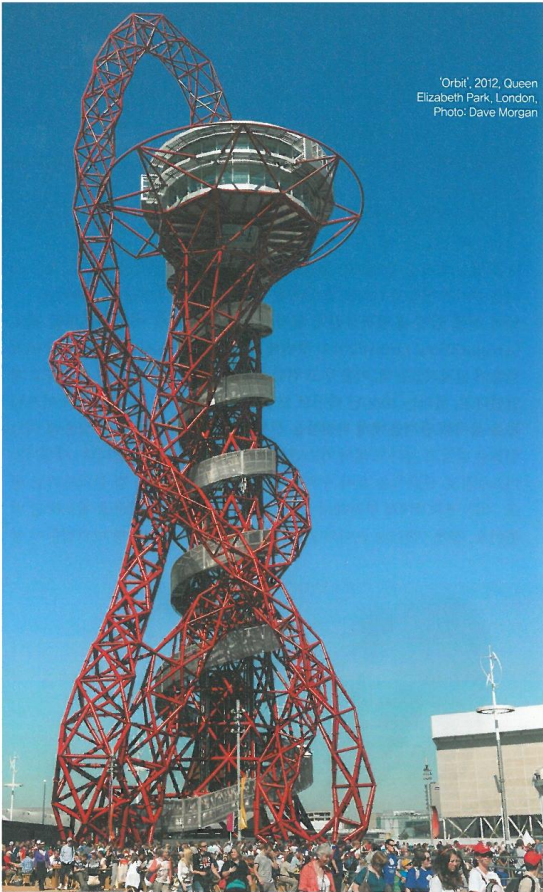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공원에 설치된 당신의 새공간 ‘아르셀로미탈 케도(ArcelorMittal Orbit)(2012) 주위에 카스텐 힐러(Carsten Höller)의 미끄럼틀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두고 런던시장이 당신의 작품이라고 속이자고 제안했다고, 힐러는 2006년 테이트 모던 터빈홀에 55미터짜리 거대한 미끄럼틀을 설치해 관객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었죠. 런던 시에서 내 작품에 미끄럼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카스텐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에서는 미끄럼틀로 관람객을 모아 수익을 내길 원했고 형편없는 걸 설치하려고 했죠. 저는 예술가에게 부탁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길 원했어요. 결국 1백15m 높이의 조각 돌레에 1백78m의 터널형 미끄럼틀이 설**



인터뷰 중에 포즈를 취한  
이냐슈 카푸어

치됐죠. 이 나선형 미끄럼틀은 세계 최장 길이로 12바퀴를 돌아 50m 직진한 후 땅에 닿습니다. 미끄럼틀의 수직적인 이미지가 좋아요. 40초 동안 1백 80m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건 상상 이상의 짜릿한 경험이죠. 카스텐과 저는 여러 면에서 아주 다른 성격의 아티스트이지만 그런 점이 같이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개인전을 가진 카스텐 힐러를 인터뷰했는데 “비물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다”는 당신과 “보이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는 힐러의 말이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현대 미술가들은 이제는 사라진 마법사나 주술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당신이나 힐러같은 예술가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예술가는 늘 미술사의 성직자 그 중간쯤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람**



'Orbit', 2012, Queen Elizabeth Park, London, Photo: Dave Morgan



'Dirty Corner', 2011, Installation View at Anish Kapoor Versailles, 2015

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왜냐하면 예술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니까요. 잘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보고 또 봅니다. 세상에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는 건 별로 없죠. 대부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면 중국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예술은 보고 또 봐도, '이게 뭘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코 뭘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술만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예술의 역사상 그런 훌륭한 작품은 무척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체 뭘지?'라고 감탄 아닌 감탄을 하게 만든다는 점 말입니다. 예술에는 끝내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 가운데 오목한 형태의 디스크 작업인 '군집된 구름들'이 있습니다. 벽에 걸 수 있는 이 반원에는 검은색 안료가 칠해져 있어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심연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기에 칠해진 안료가 빛의 99.96%를 흡수해 '완벽한 검은색'으로 평가 받는 반타블랙(Vantablack)인가요? 아니요, 이번 작품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영국에 있는 색상 팀과 함께 이 반타블랙을 어떻게 하면 3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작품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반타블랙은 매우 신비로운 색상입니다. 정말 까매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Non-object'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타블랙이 꼭 필요해요. 꿈같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특성을 지닌 색상이기 때문이죠.

현대무용가 아르람 칸의 (In-i)의 무대디자인을 맡기도 했는데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무대 역시 공연 사진만으로도 황홀하다고 느꼈습니다. 바그너는 오만한 반유대주의 독일 작곡가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무대 제작을 기꺼이 수락한 이유에 대해 "예술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트리스탄과 이졸데> 작품이 좋았기 때문

일 겁니다. 당신의 예술 세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가장 훌륭한 오페라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암흑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허무(Void), 어둠(Dark), 텅 빈 것(Empty)에 대한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작품은 여성스러움(Femininity)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졸데는 일종의 연금술사입니다. 트리스탄에게 독을 먹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트리스탄은 대단한 남자이지만 결국 실제 권력을 쟁취한 사람은 이졸데입니다. 심리적으로 무척 흥미롭죠.

지난해 가을 베르사유 전시에서 선보였던 '더티 코너(Dirty Corner)'가 반유대주의 세력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오페라 작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가 개막한 후 두 번째로 작품이 반유대주의 내용의 그래피티 낙서로 뒤덮였을 때 카푸어는 "너무 폭력적이라 지우고 싶지만 이게 작품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낙서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이번 아니라 최근 세계 뉴스에서 접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곤 대 전체적으로 자비와 관용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다수를 향한 폭력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관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의식의 여지가 없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계와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소통은 단절되고 서로를 향한 관용과 자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비키니를 입지 못하게 금지하는 건 너무 멍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엔 풍자가 필요소스지요. 제가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France, here I com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웃음) 예술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나라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자유로운 대화, 관용 넘치는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술가로서의 저와 한 인간으로서의 저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예술가로 살았어요. 예술가가 아닌 저를 상상할 수도 없죠.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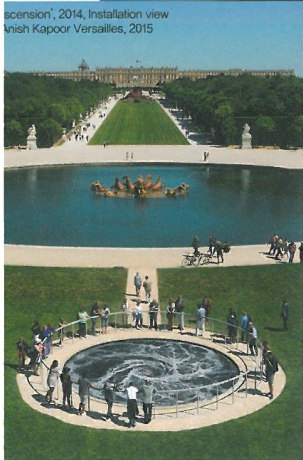
당신의 작품은 구체성을 띠지 않으며 일상적인 삶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세대와 시대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 많은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당신은 아이웨이웨이와 난민을 위한 기부 행진을 이끌기도 하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현자처럼 멀찍이 물러나 관조하지



'Tall Tree & The Eye', 2009, Stainless Steel, 1300x500x500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Photo: Kim Hyun-Soo



'Ascension', 2014, Installation view  
Anish Kapoor Versailles, 2015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아이웨이웨이에게 헌정하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을 그랑 팔레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정치적인 소리가 분명한 좌파적인'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삶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것이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만든 어떤 작품들은 당신이 말한 대로 보편적인 아

이디어를 담고 있죠. 한편 사회적, 정치적 평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너무 단순하거나 드러내놓지 않고 어떻게 그런 평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예술가들이 별로 없어요. 몇몇 미국 소설가나 위대한 예술가들은 작품 속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정교하게 담아내기도 했죠. 정치적인 의식을 갖는 것과 정치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은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성이 짙은 예술은 그 수명이 짧습니다. 저는 그런 예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실천에 있어서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가두행진 같은 이벤트를 또 할 생각이 있나요?(지난해 9월 아나쉬 카푸어는 아이웨이웨이와 함께 런던의 피카디리 거리를 10km 남게 행진하며 난민에 대한 세계인의 도움을 촉구했다. 두 예술가의 목적지는 올림픽공원의 '아르셀로미탈 케도'였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리바이어던'으로 후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풀려난 후 영국에 와서 만났을 때 난민을 위해 뭔가 하자고 얘기를 나눴죠. 우리는 걸기로 했어요.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일 없어요. 연민의 행진이고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창조적인 걸기였죠. 그 행진 이후에 아이웨이웨이는 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행사를 또 할 생각이 있느냐고요? 왜 안 하겠어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제겐 중요해요. 당신은 러시아 (바자 아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다루고 싶은 소재로 자기모순적인 것(Self-Irony)과 성(Sex)에 관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지난 수년간 나의 관심은 물리적인 오브제, 즉 물체에 있었고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브제는 우리 몸이라는 생각에 몸에 관련한 철학적 질문들을 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 소울의 유기적 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는데 몸에 관한 지난 오랜 시간의 사색 가운데 개인적 발견이 있었다면 어떤 건가요? 정답은 저도 몰라요. 관찰을 할 수 있을 뿐. 우선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어요. 어떤 차원에서 물질은 다름 아닌, 그저 물질일 뿐이에요. 모순이 되는 말이지요? 물질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순이네요.(웃음) 우리는 반대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낮과 밤, 선과 악, 물질과 비물질, 남성과 여성... 이 모든 게 반대죠. 반대의 것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정신은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하죠. 그게 제가 아는 가장 사실에 가까운 발견입니다.

혹시 집착적으로 수집하는 물건이 있나요? 아주 오랫동안 예술품을 수집해 왔어요. 제겐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9-10세기, 또는 그 이전의 예술품들을 수집해요. 그 이후의 작품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특정 시기의 작품들을 발견하면 너무 비싸지 않을 경우 바로 사죠.

지금은 고인이 된 예술가 가운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웃음) 고인이 된 예술가 중에서 제게 가장 신비로운 사람은, 너무 평범한 대답일지도 모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사람이죠,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테크닉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것들 중 여러 개를 그가 창조해냈잖아요? 그건 확실히 테크닉은 아니었어요. ■ 미디어/인문학